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9월 13일(월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녹지정책과	담당자	• 산림자원팀장 이세진 ☎440-3681 • 담당자 최희수 ☎440-3682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산림분야 국정시책 평가 ‘최우수기관’ 선정

- 산림청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 -

- 총 7개 중 6개 지표 실적 달성, 3개 지표는 최고점 획득 -

- 산사태 예방대응에 최선 다해 2013년부터 한 건의 산사태도 발생치 않아 -

인천시가 산림분야 국정시책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면서 친환경 녹색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3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‘2021년 산림분야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’에서 전국 17개 시·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

총 7개의 평가지표 중 6개 지표에서 실적을 달성했으며, 3개 지표에서는 최고점을 획득했다.

평가지표는 ▲산사태 예방·대응 체계구축 ▲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▲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▲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▲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▲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실적 등 6개의 정량평가와 ▲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의 정성

평가로 총 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.

최고점을 획득한 3개 지표는 ▲산사태 예방·대응 체계구축 ▲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▲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사업이다.

인천시는 산사태 예방·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2013년부터 한 건의 산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. 경관 훼손 우려 지역에 특화조림을 실시해 경관복원에 기여하고 도심지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기능을 위해 큰나무 공익조림을 초과 달성했다.

또한 산불예방, 산림병해충 방제,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등 정부 주요시책분야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등 산림분야 모든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.

특히 우기 전에 사방댐 사방 사업을 완료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했으며, 도심지 내·외곽에 미세먼지 차단 흡착기능이 높은 산벚나무 등 권장수종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.

소각산불 발생 시 철저한 현장 감식과 주변 탐문을 통해 가해자를 전원 검거했고, 소외계층에게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높은 공립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객실을 지정했다. 산림훼손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.

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“시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확대 등 산림복지행정에 최선을

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